

세월호 유족들, 구조 책임자 명단 공개 처벌 촉구

해경 10여명·해군 책임자 지목

초동 대응·사건 은폐·부실 수사 지적

“참사 현장 구조세력 재수사 이뤄져야”

세월호 참사 유가족과 지원 단체가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처한 해경 구조지원 책임자 명단을 공개하며 처벌을 촉구했다.

‘4월16일의 약속 국민연대’(4·16연대)와 4·16 세월호참사 가족협의회는 지난 20일 성명을 통해 서해지방해양경찰청·목포해양경찰서 관계자 10명과 해군을 구조지원 책임자로 지목하고, 미흡한 초동 대응·사건 은폐·부실 수사에 대해 지적했다.

유연식 세월호 참사 당시 서해해경 상황담당관은 진도VTS관제센터의 비상탈출 문의에 “현지 상황을 잘 아는 선장이 판단할 사항”이라고 답해 구조적 기를 놓쳤다. 이평현 당시 서해해경 안전총괄부장은 수사 초기 목포해경이 이준석 선장과 선원을 해경 자택과 모텔에 투숙시킨 사실을 알고 있었으면서도 묵인해 부실 수사의 의혹을 낳고 있다.

김형준 전 진도VTS관제센터장, 정안철 관제팀장, 김종기 행정팀장 등은 세월호가 관할 구역에 진입했을 때 신고를 받았어야 했지만 방치했다.

참사 초기 상황실을 지휘했던 조형근 전 목포해경 경비구난과 상황담당관은 오전 9시 45분까지 탈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정도로 상황을 안이하게 파악했다. 이경두 전 목포해경 수사계장은 증거인멸 등을 고려해 주요 사고책임자인 이준석 선장과 선원들을 별도 관리해야 함에도 이 선장은 부하직원(박동현) 자택에, 선원들은 모텔에 투숙하도록 지시하며 부실 초동수사 의혹을 샀다. 박동현·김준환 당시 목포해경 수사관은 아무런 문제의식 없이 이경두 계장의 지시에 따랐다.

문명일 당시 목포해경 상황실 요원은 세월호 승무원 강혜성씨에게서 “지금 승객들에게 가만히 있



“누가누가 잘 만들었나” 광주시 북구 시화문화마을 커뮤니티센터 체험실에서 지난 20일 열린 어린이 대상 오감만족 공예놀이에 참석한 문화어린이집 원생들이 직접 도예토로 만든 부엉이 인형을 만져보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라고 선내 방송을 하고 있다”는 전화를 받았지만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답변하는 등 세월호 상황을 인지했지만 주변에 전파하지 않았다.

또한 목포해경은 세월호와 직접 교신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구조함을 출동시키기까지 22분을 허비하는 등 느장 대응한 것으로 나타났다.

4·16연대는 해군도 주요 책임자로 꼽았다. 황기철 해군잠모총장은 최신 구조함 ‘통영함’ 투입을 문건 포함 두차례나 정부에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

해군은 또 세월호 내 CC-TV 저장장치인 DVR 바뀌지기 의혹을 받고 있다. 당시 현장에서 목격됐

던 해군고속함 ‘한문식함’에 대해서도 해군은 현장 도착 시간을 오전 10시 10분으로 발표했지만 현장 책임자는 오전 8시 58개로 증언하는 등 상이하다.

4·16연대는 “세월호 참사 당시 현장 구조세력에

대해 철저히 재수사를 해 책임자 처벌이 꼭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4·16연대 등은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 등 세월호 참사 책임자 명단을 공개했다. /김용희 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경찰·금융기관 협조체계

지난해 83건·올들어 29건

보이스피싱 23억원 피해 예방

광주경찰청과 금융기관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막아내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22일 광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2017년 지역 금융기관과 협조체계를 구축한 이후 지난해 해안 금융기관에서 83건의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를 해 16억 6000여만 원의 피해를 막아냈다. 이를 통해 전화금융사기범도 35명(30건)이나 검거됐다.

경찰은 보이스피싱 범죄를 막는 데 기여한 금융기관 관계자 58명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수여했다.

올해도 지난 8월까지 금융기관에서 29건을 신고해 6억 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했으며, 16명(14건)을 검거하는 데 기여했다. 경찰은 금융기관 관계자 23명에게 감사장과 포상금을 지급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앞서 지난 20일에는 광주시, 금융감독원, 금융기관(12개), 협력단체(3개) 등과 ‘금융사기 방지 협의체’를 구성했다.

협의체는 서민을 불안, 불신, 불행하게 만드는 ‘서민 3불’ 사기 범죄 예방을 위해 전화금융사기 집중 홍보(9-11월) 등에 적극 동참하기로 했다. 오는 26일에는 경찰관서별 일제 길거리 캠페인도 진행할 계획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광주·전남 공무원 매년 100여명씩 음주운전 적발

전남에서 매년 100명여 가까운 공무원들이 음주운전으로 징계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지방공무원 음주운전 처벌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5년(2014-2018년)간 음주운전으로 징계를 받은 광주·전남 공무원은 568명으로 나타났다. 이 중 전남은 455명으로 경기도(632명), 경북

(466명)에 이어 전국 17개 광역시·도 중 세번째로 많았다. 광주(113명)는 13위였다. 전국적으로는 5년간 총 4211명에 이른다. 징계는 파면·해임 54명, 강등 23명, 정직 481명, 감봉 1749명, 견책은 1904명 등이었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음주운전 징계를 받은 공무원이 2014년 1075명, 2015년 867명, 2016년 899명, 2017년 721명, 2018년 649명 등 감소 추세라는 점이다. /김용희 기자 kimyh@

신안 흑산도 해상 규모 3.3·2.6 지진 연이어 발생

22일 오전 11시 7분 27초 신안군 흑산도 남남서쪽 62km 해역에서 규모 3.3의 지진이 발생했다고 기상청이 밝혔다.

진앙은 북위 34.16도, 동경 125.16도이며 지진 발생 깊이는 17km이다.

앞서 지난 19일 오후 6시 19분에도 신안군 흑산도 남남서쪽 123km 해역에서 규모 2.6의 지진이 발생했다. 진앙은 북위 33.61도, 동경 125.01도이다.

기상청은 “두 지진 모두 피해를 미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병호 기자 jusbh@

제30회 **백제가요 정음시 문화제**

정음(詩音) 그리고 사랑(愛)

2019. 9.28(토) ~ 9.29(일) 2일간 정음사 공원 일원

주최 | 주관 정음시 사)정음시문화제제정위원회

9.28(토)

초대 가수 **송가인**

18:00 - 정음사 공원 특설무대

9.28(토)

체수의례 09:30 - 정해마을

여인제례 11:00 - 정음사공원 사우

거리 퍼포먼스(토) 14:00 - 연지아트홀 앞

공원 퍼포먼스(토-일) 17:00 - 정음사 공원 일원

9.29(일)

기획공연-달아내님은 17:40 - 정음사 공원 특설무대

러브판타지쇼(토-일) 19:30/월 20:30 (정음사 공원 특설무대)

부부사랑 노래자랑(토-일) 14:00 - 정음사 공원 특설무대

9.29(일)

정음사 가요제 18:30 - 정음사 공원 특설무대

오늘의 날씨

해돋이 06:21 달뜨기 --:--
해질 18:29 달지기 14:33

추분
흐리다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다.

광주	흐린뒤 맑음	17/24	보성	흐린뒤 맑음	17/24
목포	흐린뒤 맑음	18/23	순천	흐린뒤 맑음	18/25
여수	흐린뒤 맑음	19/24	영광	흐린뒤 맑음	16/22
나주	흐린뒤 맑음	16/24	진도	흐린뒤 맑음	19/23
완도	흐린뒤 맑음	18/25	전주	흐린뒤 맑음	16/23
구례	흐린뒤 맑음	16/25	군산	흐린뒤 맑음	16/23
강진	흐린뒤 맑음	18/25	남원	흐린뒤 맑음	16/24
해남	흐린뒤 맑음	18/24	흑산도	흐린뒤 맑음	18/21
장성	흐린뒤 맑음	16/23			

◇ 바다 날씨

		오전		오후	
		풍향	파고(m)	풍향	파고(m)
서해	앞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0.5~1.5
남해	면바다	북서~북	3.0~5.0	북서~북	1.5~2.5
남해	앞바다	북서~북	1.5~3.0	북서~북	1.0~2.0
남해	면바다(동)	북서~북	3.0~5.0	북서~북	1.5~2.5
남해	면바다(서)	북서~북	3.0~5.0	북서~북	2.0~3.0

◇ 생활지수

- 식중독: 경고
- 자외선: 높음
- 미세먼지: 좋음

◇ 주간 날씨

24(화)	25(수)	26(목)	27(금)	28(토)	29(일)	30(월)
☀	☀	☀	☀	☀	☀	☀
14/26	15/26	16/26	16/25	17/26	17/26	16/26